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3 면에서 계속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연무대에 기라대명창 《단숨에》, 민족기악과 대합창 《군민아리랑》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글발을 심장깊이 쏘아 박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철리를 거창한 실천으로 보여주며 백두의 성지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온 청년들격대원들.

힘있고 박력있는 선물이 맞추어 군민이 마음도 하나, 목소리도 하나로 합쳐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불꽃의 투쟁모습, 우리 당 군민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격동적으로 보여주었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피를 물고 날

뛰는 원수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올릴 때 우리 청년들의 전무적기개와 당의 두리에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대합창 《적기가》, 《불타는 소원》으로 끝났다.

우리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우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키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익혀진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선언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새차게 울리었다.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이 끝나자 영광의 10월을 맞으며 조선영웅청년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가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백전백승 청년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축복하며 장쾌하게 터져오르

는 환희의 축포, 승리의 축포를 뜨거운 격정속에 부감하시였다.

젊음의 힘이 치솟는 영웅청년들의 기상인양 창공높이 솟구쳐올라 백두의 하늘을 천색만색으로 황홀하게 물들이는 축포들과 인제우에서 쏟아져내리는 불폭포를 바라보며 청년들격대원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일떠세운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기쁨의 눈물속에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환호성을 터치고 또 터쳤다.

백두대지에서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아로새긴 영웅청년들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며 10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는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을 진행한 백두청춘들이 앞으로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이어붙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며 당의 척후대, 의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전구의 전사들을 찾아 또다시 불멸의 자욱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수평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어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